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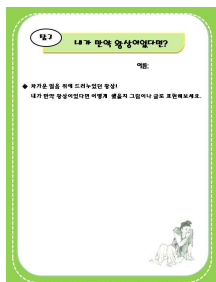


#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효 이야기



## ⑤ 와빙구리(臥冰求鯉)

- 얼음에 누워 잉어를 잡다.

활동유형	이야기나누기	활동수준	공통수준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효와 관련된 그림 보고 그 의미를 안다.</li> <li>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li> </ul>		
교육과정 관련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생활영역-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족과 협력하기</li> <li>언어생활영역-말하기-바른 태도로 말하기</li> </ul>		
활동자료 (CD에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와빙구리’ 그림 PPT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 </li> </ul> 	
<b>활동내용 및 방법</b>			
<p>▶ 부모님께서 아프셨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빠나 엄마가 아프셨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빠나 엄마가 아프셔서 누워 계셨던 적이 있니?</li> <li>어디가 아프셨니? 그 때의 기분은 어땠니?</li> <li>그 때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렸었니?</li> <li>부모님께 해드리고 나서 그때의 기분은 어땠었니?</li> </ul> </li> </ul> <p>▶ ‘와빙구리’와 관련된 그림(그림 PPT)을 보여준 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상황의 그림인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니?</li> <li>이 그림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엇일까?</li> </ul> </li> </ul>			

- 왜 겨울로 생각하게 되었니?
- 잉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림 속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 이 그림 속 남자의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인 것 같니?
- 왜 이 남자는 추운 겨울에 얼어있는 강에 있는 앉아있는 걸까?

▶ **그림과 관련된 효도 이야기를 들려준다.**

▶ **효도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낌이 어떠니?
- 너희들이 만약 왕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p><b>활동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는가?</li> <li>■ 그림 속에서 왕상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아는가?</li> </ul>
<p><b>확장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만약 왕상이었다면?’ 활동지에 내가 그림 속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본다.</li> </ul>
<p><b>중국의 24명 효도 이야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와빙구리(臥冰求鯉) - 얼음에 누워 잉어를 잡다.</b></li> </ul> <p>중국의 서진이라는 나라에 왕상이라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상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너그럽고 온순하여 부모님께 효성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왕상은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새어머니는 왕상을 항상 모질게 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이간질을 하여 아버지도 점점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상은 그런 새어머니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였습니다.</p> <p>언젠가 새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어린 왕상은 밤새 밤을 자지도 않으면서 새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서 그 동안 왕상을 모질게 대했던 새어머니를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왕상은 오히려 홀로 되신 새어머니에게 더욱 효도를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왕상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왕상의 효성을 칭찬하곤 하였습니다.</p> <p>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새어머니는 갑</p>

자기 왕상에게 신선한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상은 새 어머니에게 신선한 생선을 잡아 요리를 해드리기 위해 강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날씨에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얼음을 깰만한 도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께서 생선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자식 된 도리로서 한겨울이니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한참을 고민하던 왕상은,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는 얼음 위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한겨울 차가운 얼음에 맨살이 닿는 순간, 살을 에는 듯 한 차가움이 고통으로 밀려 왔습니다.

하아~ 하아~ 내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새어머니께 효도를 할 수 있을 때 효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 일거야.”

이렇게 다짐한 왕상은 견디기 힘든 추위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얼음 위에 자신의 몸을 더욱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상이 누운 옆자리에서 갑자기 강의 얼음이 녹으면서 물속에서 잉어 두 마리가 얼음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와, 잉어다! 그것도 두 마리 씩이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왕상의 효성에 감동한 신령님이 잉어를 보내준 것이었을까요? 왕상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으나 우선 그것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상의 잉어 요리를 드신 새어머니는 몸이 회복되었고 그 동안 왕상에게 힘들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으며, 그 후 왕상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상의 효도는 그가 살고 있던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퍼졌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상지효>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